



“워미어 죽게한 김정
은, ICC에 제소를”

이번 워미어 사태로 미국 뉴욕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건물 앞에서 북한 김정은의 만행을 규탄하는 ‘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인권활동가 마영애 미주탈북자선교회 및 국제탈북민인권협회 미주대표의 모습. ▶관련기사4면 LPN 제공

“하나님 나라 ‘의’ 위한 비즈니스 실현해 내야”

‘낮은 곳 향하는 비즈니스’ 주제로 ‘제11회 IBA 서울 컨퍼런스’ 열려

“낮은 곳을 향하는 비즈니스”란 주제로 ‘제11회 IBA(International Business Alliance) 서울 컨퍼런스’가 24~25일 양일간 장충교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리더들과 함께 이번 대화를 통해 일상 속 낮은 곳으로 들어가 곳곳에 스며들어 다양한 재능으로 섬기는 BAM(Business As Mission)er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BAM? IBA?
컨퍼런스 특강 강사로 나선 조 샘 선교사(美Center for BAM 공동대표, IBA 공동대표)는 “1990년대 중반 중앙아시아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BAM은 2004년 로잔이 주최했던 BAM운동 1차 컨설팅데이션을 기점으로 전 세계로 확장된 운동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삶과 선교를 연결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은 그 신학적 출발점과 선교적 상황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일상이 선교적 삶과 통합되는 총체적 선교의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조 샘 선교사는 “한국 선교계에서 일상과 선교적 삶의 통합, 특별히 비즈니스와 선교를 통합하려는 노력의 출발을 추적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은 방선기 목사와 신갈렘 선교사”라 밝히고, “이들은 이랜드라고 하는 비즈니스의 상황을 배경으로, 각각 직장 사역과 비즈니스 미션을 개척했던 인물”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조 선교사는 “BAM의 글로벌한 흐름과 연결되어 한국교회와 선교계 내에서 운동성을 확대하게 된 것은 International BAM Alliance(IBA)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IBA는 2007년 중국 상하이 상하이한인연합교회에서 시작했으며, 2017년 현재 약 60여개의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송동호 사무총장(IBA)은 여전다 세팅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고 있는 시대는 비즈니스가 라이프 스타일이요 문화가 된 시대”라 말하고, “이 가운데 창조명령과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우리는 일꾼으로서 또한 일터 속에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비즈니스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AM은 삶, 일터, 비즈니스를 분리시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낼 때 다양성과 연합으로, 성육신의 삶으로, 친밀함 가운데 미션을 수행하라 하신다”고 했다.

송 사무총장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이끄는 의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업 활동이 탐욕의 상징이 되어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데 반하여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세상의 장벽을 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BAM은 영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혁 즉 총체적 변혁을 이뤄야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임하

는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필요를 가진자들 속에 함께 일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낮은 곳을 향하는 비즈니스”라 이야기 했다.

◆제11회 IBA 서울 컨퍼런스에서는… 이번 행사 주제강연은 인도 캘커타 홍등가에 있는 여성들의 자립과 회복을 돕는 기업 ‘Freese’의 설립자이며 대표인 캐리 힐튼과 애니 힐튼 부부가 함께 전했다. 특히 애니 힐튼 대표는 자신들의 사례를 전하며 “우리는 이 지역사회의 전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착취가 사라지고 그녀들은 물론이고 그 자녀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을 보기 원한다”며 가난과 착취가 끊어지고 못된 관습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바로 서며 안전한 곳,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에 임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다.

또 사례발표 시간에는 다양한 BAM 기업들의 사례들이 발표됐으며, 특강 시간에는 초보자들을 위한 BAM 이해 돕기(서명구)부터 시작해 4차 산업혁명과 BAM(정원혁), BAM 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네비게이션(조샘), 세계선교의 동향과 BAM운동(송동호)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있었다. 또 BAM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해하고 BAM을 융합적이며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을 수 있었던 12개의 ‘BAM프리즘’ 강연 시간과

G&M글로벌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 단체 엑스포와 BAM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모임, 저녁집회 등도 역시 특별한 시간이었다.

◆IBA 컨퍼런스 마무리하며 ‘선언문’도 발표

2일 동안의 행사가 마무리되며 참석자들은 리더들과 함께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복음 증거는 하향적 삶을 지향 한다”고 밝히고, “상향적 자본주의 문화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복음의 중요한 표현”이라며 “우리는 약자들과의 겸손한 동행, 아픔에 대한 공감, 회복을 위한 회생을 통해 주님을 보게 되며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증거 한다”고 했다. 이어 “BAM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총체적 선교의 방향”이라 선언하고, “이 시대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 통치를 증거 하는 다양한 표현을 요구 한다”며 “BAM 운동은 죄된 세상 속에서 영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여러 선교 방법들과 함께 할 것”이라 다짐했다.

셋째로 참석자들은 “우리의 선교는 지역교회 변혁으로부터 출발 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결핍과 불의와 고통을 인식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임하도록 노력 한다”고 했다. 또 “BAM 운동은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성을 요구 한다”고 밝히고, “비즈니스 문화 속의 선교적 삶은 공동체성을 갖는다”면서 “우리는 변혁적 삶을 지향하는 다양한 공동체들의 등장을 환영하며 주목한다”고 이야기 했다.

홍은혜 기자

트럼프 취임 후 위축된 美 동성애 운동

트럼프, 6월을 LGBTQ 금지의 달로 언급하지 않아

지난 8년동안 미국에서 매년 6월은 LGBTQ 금지의 달로 지켜져왔다.

LGBTQ는 Lesbian(여성 동성애자), Gay(남성 동성애자), Bisexual(양성애자), Transgender(성전환자), Queer (퀴어, 이성애적이지 않은 모든 성적 소수자)를 의미한다.

LGBTQ 금지의 달은 미국 동성애 운동의 시작으로 알려진 1969년 6월 뉴욕 스톤월 시위를 기념하기 위해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 6월을 LGBTQ 금지의 달이라고 선포하며 지켜졌다. 하지만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는 지키지 않다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11년부터 다시 매년 지켜져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6월이 되면 LGBTQ를 백악관에 초대하는 등 성대하게 LGBTQ 금지의 달을 지켜왔는데 임기 마지막인 지난해 6월에는 뉴욕 스톤월 시위가 시작된 스톤월 여관을 국립기념지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번 6월은 정부가 지정하는 LGBTQ 금지의 달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6월은 카리브 출신 미국인 유산의 달, 흑인음악 기념의 달, 전국 해양의 달, 집주인협회의 달, 외부에서 즐기는 달로 지키라고 선포했지만 LGBTQ 금지의 달은 언급하지 않았다.

동성애자 권익단체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반 LGBTQ라는 대표적인 예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워싱턴 DC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LGBTQ들은 자기들만의 LGBTQ 금지의 달 퍼레이드를 가졌다. 이들은 LGBTQ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는 식당, 호텔 등을 지나가며 ‘Resist’(저항하다) 라고 외쳤다. 트럼프 행정부가 LGBTQ의 권익을 무시한다며 저항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반LGBTQ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소개했던 동성애자의 권리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 당시 언론들은 “트럼프가 취임한 지 한 시간 만에 LGBT의 권리에 대한 글이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엔 ‘오바마 대통령과 LGBT 커뮤니티’라는 항목 아래 동성애를 지지하는 글이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부터는 LGBTQ로 검색하면 관련 글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 2월 법무부와 교육부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공립학교에서 성전환자들

이 자신들이 선택한 성(性)에 따라 화장실, 탈의실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지침을 철회했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의 이른바 ‘화장실법’을 반대하며 당시 법무부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노스캐롤라이나 ‘화장실법’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에 따라 화장실을 쓰도록 규정한 법으로 당시 성전환자들을 차별한 것이라며 LGBTQ 단체와 기업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오바마 행정부 역시 차별이라며 법무부는 법원에 ‘화장실법’ 폐기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널 고서치 연방대법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동성결혼 절대 반대’ 입장의 사람들을 연방대법관, 부통령으로 임명한 것도 그가 반 LGBTQ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것이 LGBTQ 단체들의 시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 LGBTQ 입장이 가운데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기독교인 사업가 편을 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캔터키 항소법원은 기독교인인 프린팅 가게 주인이 게이 금지의 달 행사에 쓸 T셔츠 제작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2012년 캔터키 법원에 소재한 프린팅 가게 주인은 게이 단체로부터 게이 금지의 달 행사에 사용할 T 셔츠 제작을 주문받았다. 하지만 T 셔츠에 새겨야 할 이름과 로고 등 메시지가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배치된다고 거부했다.

게이 단체는 차별이라며 소송을 걸었고 프린트 가게 주인은 그동안 욕설이나 예수가 해적 옷을 입는 등 자신의 신앙에 배치되는 내용은 프린트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업정책이라며 반박했다. 법원은 가게 주인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강제적으로 프린트하게 하는 것은 연설의 자유 침해라며 가게 주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15년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후 제과점, 꽃집, 결혼사진회사 등은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동성커플들이 자신들의 결혼식에 필요한 케익, 꽃, 사진 주문을 거부했다가 법원에서 패했다.

하지만 이번에 캔터키 항소법원 사례를 계기로 미국에서 기독교인 사업가들은 연설의 자유를 근거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케이아메리칸포스트

韓·美 정상회담 전 워싱턴에서 ‘한미연합 오찬기도회’ 열려

한·미 양국 대통령의 첫 정상 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먼저 한반도 평화와 한미 우호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힐튼호텔에서 열린 이번 오찬기도회에는 황준석(북미주전선협회 회장), 황의춘(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샘 로라(Sam Rohrer, American Pastor’s Network 총재),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등 한국과 미국의 교계 지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6.25전쟁 67주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도움을 준 미국에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의가 있었다. 이날 설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전도한 폴라 화이트(Paula White) 목사가 맡아 전했다.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상원의원 회장인 존 부즈맨(John Boozman) 연방상원의원과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하원의원 회장인 로버트 아델홀트(Robert Adelholt) 연방하원의원의 인사말도 있었다. 한국 교계 지도자로서는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가 인사말을 전하고, 정치인으로서의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국회조찬기도회장)과 조배숙 의원(국회의당 기독교신우회장)이 뒤를 이어 인사말을 전했다.

한미 양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 긴장된 남북 및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이번 행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북미주전선협회,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주관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회장 전영현 목사)와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김영현)가 후원했다.

한미동맹결의안 미의회 통과 1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대회에 김일식 박사(前 유엔조사문제자문위원), 강필원 박사(한미자유연맹 총재) 등이 주제 발표를 했고, 에델 로이스 의원(미하원의교위원회 위원장)과 존 맥케인 의원(미상원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패널리스트로 참가했으며, 이영훈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홍은혜 기자

“이사야서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한국복음주의구약신학회, ‘제7차 구약과 목회와의 만남’

한국복음주의구약신학회(회장 현창학 박사)가 삼일교회(담임 송태근 목사)에서 “이사야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란 주제로 ‘제7차 구약과 목회와의 만남’ 시간을 가졌다.

김창대 박사(안양대)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시편과 이사야와 신명기”라 밝히고, 특히 이사야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자신의 사역을 규정하는 본문으로 인용한 책이기에 신약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에 귀중한 통찰력과 지식을 전달해 준다고 했다.

그러나 김 박사는 “오늘날 강단에서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 선포되는 메시지들은 주로 고난 주간에서 이사야 53장의 고난 받는 종의 이야기와 크리스마스 시즌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동정녀 탄생을 관한 본문(사 7:14)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거꾸로 이사야서의 본문이 어렵고, 오늘날의 삶에 적용하기에 그만큼 난해하다는 반증”이라 했다.

그는 “이사야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매우 복잡한 구조로 얽혀져 있기에, 언뜻 여러 자료들이 아무렇게나 배열된 글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자세히 보면 이사야서만큼 주도면밀하게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책도 없다”면서 “유다의 심판 이후에 열국의 심판이 있고, 최종적으로 시온이 회복될 것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 청사진이 제시된다”고 했다.

이어 “이사야서는 유다와 심판과 열국의 심판을 다룰 때, 심판 본문 사이에 종말의 회복을 삽입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고 말하고, “심판의 문맥에서 회복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독자들을 때로 당황시키지만,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에 심판이 아닌 희망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사적 기법”이라며 “이런 이사야서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이사야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무



한국복음주의구약신학회가 최근 삼일교회에서 ‘제7차 구약과 목회와의 만남’ 시간을 가졌다.

국복음주의구약신학회 제공

엇보다 잘 전달하는 귀중한 보고”라 했다.

김창대 박사는 이사야의 구조에 대해 “유다의 심판-열국의 심판-메시아의 출현-새 언약 체결과 시온의 회복(새로운 창조 질서 동반)-여호와의 종들이 남은 자의 출현이라는 종말의 회복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구도”라 말하고, “이사야서의 신학적 주제들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종말에 시온의 회복이 갖는 의미를 생생하게 증언한다”면서 “이사야서를 아우르는 통합적 주제는 회복된 시온이 공의와 의로 빛나는 데에 있다”고 했다.

“원래 하나님은 시온을 공의와 의로 빛나게 하여 그 빛을 바라보고 열국이 찾아와서 열국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 하지만 유다는 탐욕으로 인해 공의와 의에 눈과 귀를 닫고 어둠에 거하는 맹인과 귀머거리로 전락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흑암

의 심판을 내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어둠을 좋아하는 그들에게 어둠에 갇히는 심판을 내린 셈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에, 종말에 시온을 회복시켜 시온을 다시 공의와 의로 빛나는 곳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를 위해 메시아가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이 체결되고 시온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의 수혜자인 여호와의 종들이 시온에 거할 것이다. 이들이 시온에서 공의와 의를 행할 때, 이는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의 결과다(44:2; 59:21). 회복된 시온(또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이다. 종말의 시온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창조 질서를 동반할 것이다. 이로써 시온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김 박사는 “이런 이사야의 구조와 서로 유기적 네트워크를 이루는 신학적 주제들을 안다면, 설교자는 성도의 구원의

목적이 성령을 통해 공의와 의를 실행하는 데에 있음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은 시온으로 대변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고 있고, 성도의 구원은 공동체를 넘어 창조질서를 세우는 우주적 의미가 있다”면서 이런 의미들을 설교자가 파악한다면 풍성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표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김창대 박사의 발표 외에도 “귀머거리 모티브로 읽는 왕들의 이야기”(장세훈) “이사야 40-66장에 나타난 종의 교회론적 해석과 적용”(이희성) 등의 발표가 이뤄졌으며, 행사 전 교회예배에서는 송태근 목사가 설교를 전하기도 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제70차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정기논문발표회는 “종교개혁과 교회개혁”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10-11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양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은식 기자

진재혁 목사 “우리 시대 회복해야 할 성경적 리더십은”

지구촌교회 ‘GPS 2017 목회자 리더십 콘퍼런스’ 개최

지구촌교회(담임 진재혁 목사)가 22일 분당채플에서 ‘GPS 2017 목회자 리더십 콘퍼런스’를 개최한 가운데, 주제강연자로 나선 진재혁 목사가 “우리 시대 회복되어야 할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 강연을 전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지구촌교회 진재혁 목사

진재혁 목사는 성경의 리더십에 대해 먼저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 청지기 리더십(Steward Leadership), 목자 리더십(Shepherd Leadership)을 언급하고, 특히 빌2:5-8 성경구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섬지기의 리더십’이 목회자들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목사가 말한 섬지기의 리더십은 신뢰, 사명, 사랑 등 3가지 핵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신뢰’는 자기 부인을 통해 섬지기가에서 낮추고 죽으신 그 분을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 진 목사는 “오늘날 리더는 많지만, 그러나 신뢰를 갖고 마음껏 쫓아갈 리더십은 많지 않다”며 “예수와 같이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을 통해 신뢰를 줄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명에 대해서, 진 목사는 섬지기가 예수께서 지셔야 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으며 “우리가 리더십을 보여야 할 현상이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 섬지기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셨던 그 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랑에 대해서, 진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사랑이

리더십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은 나에게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렇다면 성경적 리더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진재혁 목사는 ‘경건한 삶’을 통해 발생하는 ‘영적 파워’를 말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어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성경적 리더십을 갖춰주시기 위해 여러 만남과 사건, 상황들이 발생해 ‘나’를 성장시켜 주신다고 했다.

진 목사는 특히 ‘성장’에 대해 “만남, 사건, 상황 등에 대한 반응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리더답게 빚어 가신다”며 “절망 부정적인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지금까지 ‘나’를 리더로 만들어 오셨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진재혁 목사는 리더로서 ‘홀통한 마무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성경 속 인물들 가운데 제대로 마무리를 했던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말하고,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끝이 좋았던 분들이 많지 않았다”며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고 이야기 했다.

진 목사는 이런 제대로 된 마무리를 위해 ▶바른 시각 ▶부흥을 계속 경험해 가는 것 ▶극기의 훈련 ▶홀통한 멘토 ▶계속되는 배움의 자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진재혁 목사의 강연 외에도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가 “우리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성경적 설교”를 주제로 강연을 전했으며, 이후 ‘목회자 자기개발’ ‘다음세대 사역’ ‘목양 및 교회사역’ 등의 주제로 트랙강연이 진행되기도 했다.

조은식 기자

My KIDS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입니다. 나의 아이를 Facebook에 알리주세요!

My Kids 앱

Facebook 앱

월드비전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1 검색하여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 모바일 앱 mykids.vv.or.kr로 접속해주세요.

mykids.vv.or.kr

월드비전 후원회 가입

- 월드비전 Family Circle에 가입하여 월드비전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 이동과 전화를 교환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아이들이 사는 지역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 1회 아동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통한 헌신

- 월 3천원에서 후원금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노년, 교육, 의료 및 생활에 혜택을 받습니다.
- 아동후원은 한 아이의 미래를 나의 손으로 지켜주고 한 아이의 희망이 됩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손인식 목사 “여러분의 기도에서 절규가 떠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북한 동포들 자유인권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북중앙교회(담임목사 김성운)가 23일 오후 그날까지선교연합 대표 손인식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통곡기도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교에서 손인식 목사는 “한국교회에 기도는 있으나 절규가 없어진 것을 느낄 때가 많다. 예배는 있으나 어느새 눈물이 사라진 한국교회 예배들을 볼 때가 많다”며 “절규가 있는 기도가 있을 때 절규가 최후의 승부를 확 열게 된다”고 강조했다.

손 목사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서 절규가 떠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마지막 절규해본 적이 언제입니까?”라고 물으며 “절규가 있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개입하기 시작하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목사는 이어 미 상원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던 일 앞서도 ‘절규의 기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여 년 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350만 이상이 굶어 죽는 죽음의 행렬을 보면서 이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절규하고 부르짖자고 초청을 했다”며 “그랬더니 미 전역에서 캐나다에서까지 1,600명에 이르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와 주셨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절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민족이 어찌할꼬, 70년이 넘게 꼬리 없는 짐승처럼 노예 중의 노예가 되어있는 우리 동족들을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다들 부르짖고 절규했다. 눈물이었다. 장이 끊어지도록, 가슴을 치고 절규했다”면서 “거기에 미국의 100명의 상원의원 중 한 분 독실한 크리스천이신 샘 브라운백을 연사 중의 한 분으로 모셨는데 이분이 저희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절규를 들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 날 그분이 미 상원의원 100명에게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보좌

관을 보내고 자기가 찾아다니며 ‘1,600명이나 되는 한인교회 목사들이 기도하고 있더라. 왜 북한인권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못하고 붙잡고 있겠냐’며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자고 했다”며 “그날 점심시간 시작하기 전에 100명의 상원의원의 마음에 하나님님이 다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셔서 100명이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고 손인식 목사는 강조했다.

이날 성도들은 북한의 우상 독재와 인권 탄압이 끝나기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풀려나고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기를, 전쟁이 없는 평화 통일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또 한국교회와 잠에서 깨어서 통일의 주역이 되기를, 세계 모든 나라라 일어나 한반도 통일을 돕게 하시기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통일을 누리기를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 중에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출연자인 탈북민 김현정 자매와 북한 동포직접돌기운동 이만복 대표의 탈북 간증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 그날까지선교연합의 통일선교사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통일선교사는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하며 통일과 북한

동포, 탈북자,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매월 통일 한국을 위해 모이고 부르짖는 연합 기도회나 모임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또 자신 외에 한 명 이상이 통일선교사 10만 명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매월 1만 원 이상을 통일한국 사역을 위해 헌금한다.

성북중앙교회와 함께 이날 행사를 주최한 그날까지선교연합은 성도들에게 통일선교사 헌신 서약서와 북한을 위한 매일 기도 제목 6월호를 제공했다.

성북중앙교회는 통일비전스쿨의 첫 시간을 이날 통곡기도회로 진행했다. 오는 30일 금요기도회에는 통일한국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인 마중물 대표 아무열 목사(예수마음교회 담임)를 초청했다.

그날까지선교연합은 한국에서는 지난 5월 21일 서울 원전교회(담임목사 문강원)를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에서 2017년도 제2기 통곡기도회를 진행한다.

한편 그날까지선교연합의 뿌리인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KCC)’는 다음 달 11~13일까지 워싱턴에서 한인 2세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북한 인권 행사를 연다.

오상아 기자

“목회자들의 영적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다니엘기도회&꿈이있는미래 서울·경기 컨퍼런스 열려

‘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 컨퍼런스 전국투어’(이하 컨퍼런스) 10차 행사가 지난 22일 서울 오륜교회(담임 김은호 목사)에서 55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하여 은혜 가운데 마무리 되었다.

이날 컨퍼런스는 김은호 목사(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 꿈이있는미래 대표, 오륜교회 담임)의 강의로 시작되었다. ‘건강한 목회,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강의는 지역 목회자들의 영적 갈등을 풀어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이어지는 점심 시간에는 오륜교회 및 다니엘기도회, 꿈이있는미래 사역 박람회도 진행됐다.

오후 시간에는 다니엘기도회(주성하 팀장)와 꿈이있는미래(주경훈 소장)의 사역 소개 및 컨설팅 시간이 진행됐다. 각 교회에 가장 필요한 예배와 기도회의 회복,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이 사역 컨설팅이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21일간의 기도회로 2016년 약 3,200여 교회가 함께 참여한 다니엘기도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대안적 교육을 표방하는 꿈이있는미래가 함께하는 컨퍼런스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영적인 회복과 목회철학 공유, 실제적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는 컨퍼런스이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컨퍼런스는 전주

를 시작으로 하여 창원, 제주, 광주, 대전, 부산, 순천, 원주, 대구 등 전국 각지의 지역교회들과 함께하는 컨퍼런스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2,300여 교회 3,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

현재 다니엘기도회는 현재 5,800 교회 신청을 마쳤으며, 꿈이있는미래는 1,700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

주최 측은 컨퍼런스 전국투어에 대해 “목회 철학 공유의 시간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하는 연합의 장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연합을 통한 기쁨과 목회의 동력을 잃어버린 목회자들의 영적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서울/경기 컨퍼런스에 이어 진행되는 6월 29일 11차 인천지역 컨퍼런스 수도권 지역 목회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 측은 “수도권 도시 목회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수도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전했다. 문의: 02-6413-4922~4

홍은혜 기자



참석자들도 함께 찬양과 율동을 따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륜교회 제공

한장총, 엑소더스 한반도 포럼 개최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채영남 목사, 이하 한장총)이 지난 6월 22일 비전70위원회 주관으로 엑소더스 한반도 포럼을 개최했다.

대표회장 채영남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현재의 한반도에서 통일, 건강한 대한민국으로의 엑소더스에 많은 교훈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것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엑소더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지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오치용 목사(한장총 비전70사업단장)는 ‘엑소더스 한반도와 통일광장 사랑마을’이라는 제1발제에서 출애굽의 힘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출8:19)’인데 이것이 ‘디지털스 테이(Digitus Dei)’로 디지털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손인 성경을 문화 곳곳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사회의 엑소더스의 방향임을 제시했다.

김형석 박사(통일선교연합회 사무총장)는 제2발제에서 도산 안창호의 이상촌(理想村) 운동, 윤치호, 이상훈의 이상향(理想郷)운동의 역사적 사례를 소개하며 한



국교회의 엑소더스 사랑마을을 건설에 대한 제안을 했다.

권혁만 PD(KBS 한국방송공사)는 ‘엑소더스 한반도와 바이블 루트 다큐영화 기획안’에 대해 발표했다.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은 성경이 전래 따른 것이며 그 길을 다큐멘터리로 기획한 것이다. 그는 1866 미국상선 제너럴셔먼호 사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와 최치랑의 만남, 존 로스와 사상륜의 만남, 일본의 쯔

다센 박사와 이수정의 만남 등이 성경 전래의 길을 조명해 앞으로의 우리의 나길 엑소더스의 길을 제시했다.

김수을 목사(한장총 부회장)은 ‘엑소더스 한반도와 한국교회 부흥운동과 기도’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대한민국이 기도운동으로 교회의 부흥과 사회의 성장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방 전, 6.25 전후의 부흥운동과 기도, 1973년 빌리그래함 부흥운동, 한국의 새벽기도 부흥운동

을 소개하며 현재 한장총에서 전개하는 한국교회 5천기도단 운동에 대해 발표를 했다.

한편 발표 후 황덕영 목사(세종양교회)의 진행으로 진행된 질의 응답 시간에는 통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등에 이반 포럼에서 다른 한반도 엑소더스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이뤄졌다.

박용국 기자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북한정의연대 성명] 월비어의 사망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은 북한인권 우선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북한에 억류됐다 17개월 만에 석방된 뒤 사망한 오토 프레드릭 월비어(Otto Frederick Warmbier, 22세) 장례식이 22일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와이오밍 고등학교에서 친인척 등 2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월비어는 지난 13일 혼수상태로 고향인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로 돌아와 병원에 입원한 지 엿새 만에 결국 숨졌다.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 재학 중이던 월비어는 지난해 1월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한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이어 3월에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고 강제 억류 되었다. 월비어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북한은 월비어가 재판을 받은 뒤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수면제를 복용한 후 코마(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을 내놓았으나 설득력이 없다.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

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숨진 월비어를 망연자실하게 보내는 미국 국민들은 북한 당국이 과연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은 월비어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사실 확인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노르웨이 회의에 참석한 북한 외무성 국장이 억류중인 미국인 4명의 석방을 요구를 받고 나서 알아본 끝에 월비어의 건강이 악화된 사실을 나중에 확인했다.

이로 보건대 월비어 강제억류와 사망 직전의 송환사태는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보위부가 월비어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감추려고 무리하게 억류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혹은 월비어가 혼수상태로 되어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석방을 허

락한 것은 월비어를 의도적으로 고문하고 학대한 것을 감추기 위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전략적 책동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월비어의 사망의 최종 책임자는 북한 보위부의 실권자이며 북한 정권의 지도자인 김정은이다.

월비어의 사망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다시 한 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상황을 개탄하고 치를 떨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과 권고에서 북한인권 책임자인 김정은을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3년째 주장하고 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마이클 커비가 말한 대로 월비어의 사망은 북한정권의 공포와 탄압에 의한 주민 통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해실함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하여 북한과의 결과 없는 대화 공세로만 대처 할 것이 아니라 인권우선 정책(Human Rights Priority Policy)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월비어의 유가족에게 조전을 전달하고 북한인권을 언급한 것은 높게 평가하는 바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현재 6명의 자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국 국민에 대한 위로와 조전을 보낸 성의만큼이나 자국민에 대한 안전 확인과 송환도 북한에 즉각 촉구해야 할 것이다.

월비어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하여 미국 정부와 국민 전체가 함께 애도하는 것을 보며 지금 북한에서 무기노동교화형을 받고 수년째 강제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국민 각계의 보다 더 깊은 관심과 행동을 촉구한다.

“월비어 죽게한 ‘살인마’ 김정은 ICC에 제소하라” 유엔 北대표부 앞 ‘인 시위’ 미주탈북자선교회 마영애 대표 ‘1인 시위’ 진행…北대표부 직원들도 놀라

북한에 17개월 간 억류됐다 풀려난 지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월비어(22) 씨의 장례식이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업수된 가운데, 장례식 다음날 뉴욕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앞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인 시위’가 진행돼 이목을 끌었다.

미주탈북자선교회 및 국제탈북민인권협회 미주대표로 활동 중인 인권활동가 마영애 대표(LPN로컬과워뉴스 NY·NJ 특파원)가 23일 오전 10시 30분 미국 뉴욕 유엔 북한 대표부 앞에서 김정은 살인집단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마 대표는 “악마 김정은아, 네가 오토 월비어를 죽였다. 이것은 ‘현대판 김정은 식 홀로코스트다.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하는 것을 중단하라!’”(Kim Jong-Un, the devil, you killed Otto Warmbier. It is Modern Holocaust by Kim Jong-Un. Stop torturing innocent people!) 고 쓴 피켓을 들고 2시간가량 1인 시위

를 이어갔고, 그는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시위현장을 지나던 미국시민들은 마 대표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지지를 보냈고, 일부 시민들은 함께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유치원 선생님 손에 이끌려 즐겁게 노래 부르며 지나가던 유치원생들이 마 대표가 들고 있는 피켓을 읽고 놀라 걸음을 옮기지 못했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아이의 모습도 보였다고 마 대표는 전했다.

한편, 마영애 대표의 1인 시위 현장을 지나 유엔 사무실로 들어가던 북한 대표부 직원

“오토 월비어를 고문해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마 김정은을 국제사회는 처형하라”는 마 대표의 외침에 황급히 출입문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장세규 기자

北에서 송환 뒤 숨진 ‘월비어’ 장례식...”수 천명 참석해 애도”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문재인 대통령 조전 전달”

북한에서 풀려난 지 엿새만에 숨진 대학생 오토 월비어 씨의 장례식이 22일(현지시간) 친지와 친구,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의 모교에서 열렸다.

이날 월비어 씨의 장례식이 거행된 미국 오하이오주 와이오밍 고등학교에는 1,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몰려 장례식장이 꽉 차는 바람에 일부는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외신들이 이 전했다.

신시내티 현지 언론은 약 2,500명의 추모객이 장례식장을 찾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장례식은 언론의 접근이 차단된 가운데 유대교 랍비가 진행했으며, 월비어 씨의 형제와 자매, 친구들 순서로 추모사를 낭독한 데 이어, 고교 시절 월비어 씨와 같은 스포츠 팀에 소속됐던 친구가 직접 헬로를 연주하기도 했다.

북한을 방문해 월비어 씨를 송환해온



오토 월비어 씨의 장례식 순서지 앞면, VOA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장례식에서 월비어 씨의 부모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조전을 전달했다.

오하이오주의 롬 포트먼 상원의원 등 상하원 의원들도 장례식에 참석했고, 이후 월비어 씨의 유해는 친구들의 손에 들려,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묘지에 안장됐다. 월비어 씨가 자란 인구 8,000명의 작은 도시 와이오밍 마을 곳곳에서는 애도와 추모의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와이오밍 고등학교와 월비어 씨의 집 주변의 가로수와 기둥들에는 월비어 씨를 추모하는 의미로 하얀색과 파란



22일(현지시간) 오토 월비어 씨의 장례식이 거행된 미국 오하이오주 와이오밍 고등학교 앞에 조문객들이 줄 서 있다. 1천 명이 넘는 조문객이 몰려 장례식장이 꽉 차는 바람에 일부는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VOA

색 리본이 묶여 있었다.

월비어 씨와 어린시절부터 친구인 딸을 둔 폴과 브리타 슈워츠 씨 부부는 21일 “월비어 씨의 성품으로 미뤄볼 때, 절대로 북한 정권이나 북한 사람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이들 부부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월비어 씨가 북한에서 겪은 일 또한 매우 불공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월비어 씨의 고향을 지역구로 둔 롬 포트먼 상원의원은 장례식이 열린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북한 정권이 월비어 씨 사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포트먼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던 월비어씨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같은 해 3월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과 북한의 오랜 교섭 끝에 지난 13일 혼수상태로 고향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로 돌아온 월비어씨는 병원에 입원한 지 엿새 만인 19일에 결국 숨졌다.

최누리 기자



미국 뉴욕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건물 앞에서 북한 김정은의 만행을 규탄하는 ‘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인권활동가 마영애 대표 앞을 지나던 유치원생들이 피켓 내용을 읽고 깜짝 놀라고 있다. LPN 제공

| | | | | | |
|--|--|-----------|--|--|--|
| <h1>기록일보</h1> | | | | www.christiandaily.co.kr | |
| 사장·발행인 김광수 | | 일반편집장 장세규 | | 교계편집장 김규진 | |
|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 | | | | |
| 대표메일 corp@cdaily.co.kr | | 광고 및 | | 구독문의 070-4352-2480 | |
|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 | 대표구좌 | | SC은행 130-20-571787 | |
| 구독신청 | | | | 우리은행 1005-301-884992 | |
|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1개월 15000원 | | | | | |
| <hr/> | | | | | |
|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 | | | | |
|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

본사와 함께 있는 철학동화-철학하는 마이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할아버지의 코트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미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낡고 해져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급제, 낡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리넨, 오렌지, 울퉁퉁한 것도 소용이 다뤄요,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해요.
친한친한 명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함께 디자인해 보세요! 마티스르 이모제

출판인: 알리스벳스 | 그림: 마티스르 이모제 | 편집: 이모제 | 디자인: 이모제

한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해요. 도서 번호: 02-734-0958 **미마추**